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국민의힘 김유성·새로운미래 김선우·개혁신당 박진오·무소속 이석형 후보(왼쪽부터)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정당 후보측 제공>

3선 국회의원 vs 前 함평군수 초반 기선잡기 주력

제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전남 최대 격전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의 사실상 맞대결로 조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 전 군수는 현역 교체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장날을 맞은 장성 황룡시장에서는 두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한자리에서 만났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을 방증하듯 두 후보는 직선으로 불과 50m 정도 거리를 두고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선거 초반부터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가

운데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은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 등 지방소멸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제19·20·21대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후보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만 3연속 당선공천을 받았다.

이 후보는 무능력·무책임·무비전의 3無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을 선거전략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2년도 안 돼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에 의해 권력까지 뺏기면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차별화된 국정 경험, 의정활동 역량 등을

4·10 총선 격전지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무능력·무책임·무비전尹정부 심판"

이석형 "지역의 강력한 변화 이끌어 나갈터"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 후보 구슬땀

통해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리 3선 역임한 이석형 후보는 '함평나

비축재'를 전국구 축제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이 전 군수는 민주당이 3선인 이개호 의원을 단수공천 하자 반발, 무소속 출마했다.

그는 이번 총선 선거전략을 현역 국회의원 교체로 세웠다. 검찰독재 윤석만 39세의 나이로 함평군수에 당선돼

내리 3선 역임한 이석형 후보는 '함평나비축재'를 전국구 축제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이 전 군수는 민주당이 3선인 이개호 의원을 단수공천 하자 반발, 무소속 출마했다.

그는 이번 총선 선거전략을 현역 국회의원 교체로 세웠다. 검찰독재 윤석

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맞서 싸우지 않는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석형 후보는 "전국 단위 활동가, 혁신의 아이콘, 현장 중심 해결사라는 장점을 토대로 지역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팔기특구 조성 및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담양)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 연계(함평)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영광)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담양)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는 ▲주거재생활성지구(행정복합도시) 조성(담양) ▲해양치유·레저관광단지

조성(함평) ▲AI 농업 융복합 단지 조성(영광) ▲글로벌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장성)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 김선우 후보는 ▲문화예술공연 관광레저산업 융·복합화 및 관광벨트 추진(담양) ▲국제의료복합서비스 단지 조성(함평)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혁신도시 성장(영광)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주거단지 조성 추진(장성)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박진오 후보는 ▲영광·함평간 국도22호선, 함평·장성간 국도 24호선 첨단산업 유치 통한 4차선 산업도로 조기완공 ▲함평 빛그린산단, 영광 대마산단, 장성 나노산단, 담양 예곡산단 반도체 관련소부장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박성강·양시원 기자

여수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속도낸다

도·5개 기업, 3조9천억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여수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9천200억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정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 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유 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또한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 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오늘부터 190농가 5천200두 지원

광주시는 31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4월1일부터 14일까지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염소 등 반가축이 들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며, 입술과 발굽 등에 물질이 생기는 등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종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적은 없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염소를 키우는 지역 우제류 사육 190농가 5천200두다. 광주시는 전업 축산농가(소 50두 이

상·염소 300두 이상)는 농가에서 자가 접종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사의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구제역 예방약품비 3천500만원, 접종시술비 2천200만원 등을 투입해 소규모 축산 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 후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강 기자